

일본기업, M&A를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자 예정

일본기업은 신흥국의 성장분야에 대한 진출을 위해 약 5조엔 (65조원)의 M&A자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. 일본은 대지진 이후 공격적인 M&A에 나서고 있어 일본기업의 미래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□ 현황 및 배경

- 일본의 주요 30개 기업이 해외M&A 준비자금으로 5조엔(65조원)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니혼게이지신문이 6일 보도
 - 이러한 일본기업의 M&A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에는 △일본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위기의식, △국제경쟁의 격화, △그동안 비축해온 풍부한 현금 활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
 - 일본은 M&A를 통해 △성장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, △해외시장의 공략 가속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기업을 인수할 방침
- 톰슨로이터에 의하면, 작년 한해, 일본기업의 M&A 총액(3조9000억엔)보다 1조엔 이상 많은 규모임

□ 사 례

- 미쓰비시화학은 향후 5년간 M&A에 5000억엔을 투입, 영업이익을 700억엔으로 늘릴 계획임

- 고바야시 미쓰비시화학 사장은 “규모가 힘” 이라면서 “세계 시장 리더가 되기 위해 M&A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” 고 밝힘
- 아지노모토는 향후 3년간 해외 인수활동 및 판매망 구축에 3000억엔을 사용할 예정
 - 아지노모토사장은 “식품은 지역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현지기업을 인수하는 것이 유리” 하다고 언급
- 오지제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 아시아 신흥국 업체를 인수할 방침(최근 말레이시아 골판지 제조업체를 인수)
- 후지필름은 항암제와 관절염 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의 인수를 검토 중에 있음(매년 최대 3000억엔까지 사용)

〈M&A자금을 준비한 주요 일본기업〉

사업규모 확대	투자대상
아사히그룹	국내음료사업 재편이나 아시아 전개
8,000억엔	
미쓰비시케미컬	기능 화학제품이나 헬스 케어
5,000억엔	
해외진출 가속화	
아지노모토	해외 식품브랜드나 판매망
3,000억엔	
오지제지	준비금액의 90%를 해외 사업에 투자
1,000억엔	
성장분야 강화	
도시바	환경·에너지분야
7,000억엔	
아사히카세이	재택의료, 원격감시의료 등
4,500억엔	

자료) 닛케이신문

□ 시사점

- 일본기업의 해외 M&A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기업의 미래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M&A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〈참고자료〉

日経新聞（7月6日）

〈참고〉 M&A자금을 비축하고 있는 주요 일본기업 리스트

	준비금액 (억엔)	기간 *기간은 결산기
도시바	7000	12/3~14/3
아지노모토	3000	
후지필름	1500~3000	
도레이	2000	
다이셀	1000	
미쓰이화학	1000	
세키스이화학	750	
미쓰이조선	500	
스미토모중기	500	
JSR	500	
다이소	300	
히타치조선	200	
도요잉크	200	
미쓰비시케미컬	5000	12/3~16/3
아사히카세이	4500	
아사히맥주그룹	8000	11/12~15/12
삿쵸로	1000	12/12~16/12
산토리	3000	중기적으로
구보다	2000	